

‘위니아 돌레바람’ 에어컨 여름사냥 나선다

AI 탑재해 업그레이드 똑똑해진 에어컨
간접바람으로 냉기 전파 ‘아이모드’ 매력
미세먼지·곰팡이 제거...절전효과 등 다양
사물인터넷 적용 집 밖에서도 제어 가능

에어컨이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위니아답체의 2019년형 ‘위니아 돌레바람 에어컨’은 강화된 측면 바람기법과 미세먼지 제거,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여름 사냥’에 나선다.

지난해에 이어 선보이는 ‘돌레바람’에는 슬라이딩 도어를 추가했고, 스마트홈 플·AI 스피커 누구(NUGU)와 연동으로 편의성을 높였다. 위니아답체는 ‘돌레바람’을 간편 제품으로 내걸면서 실속형 ‘웨이브’와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인 ‘돌레바람’ 등 72종(스탠드형 42종·벽걸이형 30종)으로 여름 고객 맞이를 마쳤다.

◇추위 걱정 없는 ‘건강한 바람’=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은 간접풍 기능을 강화했다. 지속적인 직접풍은 실내를 지나치게 춥게 만들어 불쾌감이 커진다는 내부 분석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돌레바람’ 에어컨은 일반 냉방 때는 정면으로 바람이 나오다가, 돌레바람 기능을 선택하면 정면에 있는 원판 모양의 토출구 측면에서 바람이 나온다. 두 개의 토출구에서 나온 바람은 벽을 따라 거실 둘레에 냉기를 전파하고, 사용자의 피부에 찬 바람을 직접적으로 접촉시키지 않으면서 실내를 시원하게 만든다.

절전돌레제습 기능은 에너지 효율도 높인다. 습기를 제거한 뒤에는 자동건조로 곰팡이와 냄새가 발생하는 것을 차단한다. 제품의 동작 상태와 실내 온도는 음성으로 실시간 안내 받을 수 있다.

현대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신제품 ‘돌레바람’은 멀티 슬라이딩 도어 타입으로, 닫힌 도어와 돌레바람(간접풍) 도어로 구성됐다. 돌레바람 모델의 돌레바람 기능과 절전제습, 공기청정, 자동건조 등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했다. 거기에다 토출구를 세로로 긴 모양으로



위니아답체가 선보인 위니아 에어컨 ‘돌레바람’(왼쪽)과 ‘돌레바람’은 거실 둘레에 냉기를 전파해 간접바람 효과를 높이고 미세먼지 제거, 사물인터넷 기능을 탑재했다. <위니아답체 제공>

만들어 간접 바람 효과를 높였다.

영·유아 가정을 위해 냉기의 토출 온도를 18도로 높여서 냉방하는 ‘아이모드’ (기존 토출온도 10~11도)도 매력 요소로 꼽힌다.

벽걸이형 에어컨은 용량이 7평(약 23㎡)으로, 지난해(6평) 보다 늘었다. 좌우 자동 스윙 기능은 상하좌우로 넓게 바람이 퍼질 수 있도록 돕는다.

◇공기청정·사물인터넷 ‘똑똑한 에어컨’=위니아 에어컨은 공기 청정 기능을 탑재해 미세먼지는 물론 초미세먼지 걱정까지 덜어준다. 스탠드형, ‘돌레바람’, ‘돌레바람’ 등은 한국공기청정협회 공식 인증(CAC)을 받은 4단계 청정시스템으로 돌아간

다.

생활먼지를 걸러주는극세사 필터부터 ▲탈취필터 ▲초미세먼지잡는 전자제어해파 필터(IFD)필터 ▲이온화(이오나이저) 등 4단계가 그것이다.

위니아 공기 청정의 핵심기술인 ‘전자제어해파필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200분의 1 정도로 작은 먼지를 99.99% 제거할 수 있다. 이 필터는 물로 씻을 수 있고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

앞으로는 에어컨을 끄지 않고 외출해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은 집 밖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과 함께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어 환경을 통해서다.

SK텔레콤의 인공지능(AI) 스피커인 ‘누구’는 ‘말’만으로도 에어컨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에어컨과 연동된 스피커는 날씨, 공기질 등 정보를 알려주고, 에어컨 작동·풍량·온도조절 등을 음성으로 가능하게 했다. 신형 위니아 에어컨(스탠드형) 구매 고객은 이 서비스(스피커 별매)를 별도 요금 없이 사용할 수 있다.

2019년형 위니아 에어컨 출하가는 스탠드형 189만~292만원, 벽걸이형 63만~147만원이다. 위니아답체 온라인 쇼핑몰 ‘위니아e샵’ 등 각종 온라인 쇼핑몰과 위니아 전문점, 하이마트·전자랜드 등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혁표 위니아답체 대표는 “지난해 최악의 폭염을 경험하면서 올해는 더 강력한 냉방을 지원하고 건강에 좋은 간접풍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커 이를 강화한 제품을 선보였다”며 “공기 청정 기능과 스마트 제어로 활용성을 더욱 향상해 쾌적한 실내 환경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락앤락’ 인기 상품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롯데아울렛 월드컵점
31일까지 최대 75% 할인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으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생활용품 브랜드 ‘락앤락’ 제품을 최대 75% 싸게 살 수 있는 기획전이 마련된다.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25~31일 1층 특설매장에서 락앤락 아월상품 300여 종 등을 75%까지 할인 판매한다.

이번 기획전에는 여름 휴가철 바캉스와 캠핑에 유용한 제품들이 매대를 꾸민다.

세련된 디자인의 락앤락 여행용 캐리어(24인치)는 5만9800원에 선보이고 ▲여행용 파우치 세트(5개) 1만800원 ▲캠핑전용 식기용품인 ‘넉스틱 그릴팬’(30cm) 1만8800원 ▲레인보우 밥그릇 세트 3500원 ▲레인보우 접시세트 4700원에 판매한다.

집에서 여가를 보내는 ‘집캉스’(집+호캉스) 쪽을 위한 기획도 돋보인다. 침대 위에서 식사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한 ‘대나무 베드 트레이’를 1만800원에 판매하고 수박 보관용기(6L·쟁반포함) 9900원, 인체에 무해한 STS 재질로 제작된 ‘비엔나 텀블러’를 7000원에 내놓았다.

락앤락의 전통적인 인기 제품인 밀폐용기(5개·1만5000원), 후라이팬 2개 세트(1만7800원), 양수 냄비(24cm·2만9800원), 빨래 건조대(2만9900원)도 만날 수 있다. 행사 기간 중 3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장바구니 세트 등을 증정한다.

양남군 월드컵점장은 “락앤락의 인기 아이템을 한 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락앤락 레인보우 밥그릇 세트’

태양광발전소 연계 ESS에너지저장장치



- 태양광 발전사업자 사장님들께 희소식!
- 태양광 발전소에 ESS 설치시 REC 가중치5.0배
- 설치방법 : 본인부담10%·용자90%
- 1년거치 14년상환 (1개월이내 설치완료)



★태양광발전사업소, 매도·매수 하실 분 상담환영 **총괄본부장 010-9896-9754**
 ★태양광분양 및 태양광 현재설치중, 설치완료, 개발행위완료, 선로확보, 물건 다량확보

제품

LG ESS 삼성SDI SAMSUNG

ESS·설계·시공

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보도 자료**
http://www.mofa.go.kr

태양광 발전소에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대폭 확대
- 태양광 +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제(신재생에너지 3.0) 부여 -

정부와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협력하기로
- 신재생에너지 3.0 대안(신재생에너지 3.0)에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

-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 마련
- 지자체, 에너지신산업 특별조례, 재정 지원
- 신산업 예산공력 등 대규모 프로젝트(4조원) 추진 가능함에 환경 노력

ESS통합시스템 15년 효율보증서 발행 (무정전 전력 공급장치)